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솔로몬 군도

### Solomon Islands

2020년 11월 3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29천 km <sup>2</sup> 	<b>인구</b> 64만 명 (2019년) 	<b>정치체제</b> 영국식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친서방정책 
<b>GDP</b> 16억 달러 (2019년) 	<b>1인당GDP</b> 2,494달러 (2019년) 	<b>통화단위</b> Solomon Islands Dollar (SI\$) 	<b>환율(U\$기준)</b> 8.17 (2019년) 

□ 솔로몬 군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 호주 북쪽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군도(群島)국으로, 입지 특성상 자연재해 관련 직·간접 비용이 높고 기후변화에 취약함. 삼림자원을 활용한 벌목업이 주력산업이며, 제조업 기반은 대체로 미비함.

□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영연방 국가로 내각제를 택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총선 결과 소가바레(Sogavare) 전 총리가 2000년 이후 4번째로 총리로 선출되었음.

□ 1999~2003년 중 중족 간 갈등으로 정치·사회 불안이 심화되자 호주, 뉴질랜드가 주축이 되어 솔로몬 군도 지역지원단(RAMSI)을 파견하여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치안 유지를 지원한 바 있음.

□ 최대 수출국이자 공여국인 호주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존에 사회 전반에 걸쳐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던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8. 9. 15 수교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겸임)

**주요협정** 어업협정('80), 무상원조협정('12)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20,934	23,102	49,494	플라스틱, 고무, 기계류
수입	9,728	9,751	9,966	농산물, 임산물, 목재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6월말 누계,총투자기준)** 6건, 32,023천 달러

##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sup>e</sup>	2020 <sup>f</sup>
경제성장률(%)	5.9	5.3	3.9	1.2	-5.0
GDP 규모(억 달러)	13.8	14.6	15.9	16.0	15.5
소비자물가상승률(%)	0.5	0.5	3.5	1.8	3.9
재정수지/GDP(%)	-4.2	-3.4	0.9	-1.7	-5.6
경상수지(백만 달러)	-49	-63	-48	-154	-176
경상수지/GDP(%)	-3.5	-4.3	-3.0	-9.6	-11.3
상품수지(백만 달러)	13	7	5	-32	-74
상품수출(백만 달러)	432	469	534	556	566
상품수입(백만 달러)	419	462	529	588	639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514	577	613	601	601
총외채(백만 달러)	264	377	324	351	N/A
총외채잔액/총수출(%)	44.2	59.3	44.7	54.9	N/A
D.S.R.(%)	3.8	4.0	5.6	2.6	N/A

자료: IMF

## 구조적취약성

###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리적 환경

- 솔로몬 군도는 대양주에 위치한 소규모 군도 국가로서 태풍, 가뭄, 지진, 쓰나미,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1980~2016년 중 연평균 약 0.6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겪었음. 이는 비슷한 환경의 주변국에 비해서도 빈번한 수준이며,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

태평양 섬 국가들의 연평균 자연재해 횟수(1980~2016년)



자료: IMF

- IMF는 솔로몬 군도를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1980~2016년 기간 중 가장 큰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GDP의 14%에 달했으며, 2020년 기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수준은 경제성장률과 수출 규모를 각각 1.5%p, 3.5%p 하락시킬 것으로 산출됨<sup>1)</sup>.
-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에 더해 임업과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작은 경제규모와 낮은 소득수준, 양적·질적으로 미비한 인프라 등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고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함.

### 벌목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환경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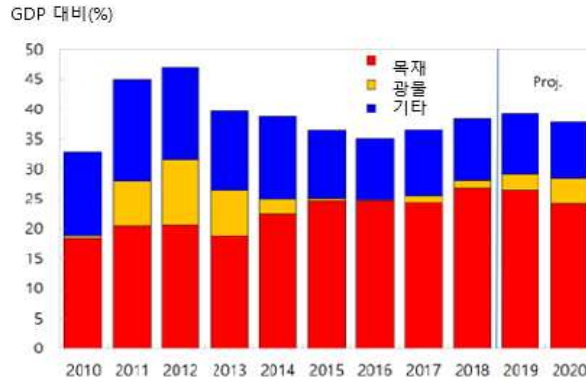
- 1930년대부터 발달한 벌목업은 솔로몬 군도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정부 수익의 20%, 수출의 60% 및 외화 수취액의 32%를 차지<sup>2)</sup>하며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벌목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됨<sup>3)</sup>.
- 벌목업은 국가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2006~18년 기간 중 연평균 15%씩 성장하였으며, World Bank는 솔로몬 군도의 벌목업이 삼림을 착취하는 속도가 지속가능한 수준의 17배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1)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2) Moody's, Credit Opinion, 15 September 2020

3)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솔로몬 군도의 GDP 대비 수출규모 및 구성



자료: IMF

- 과도한 벌목과 광범위한 벌목도로 건설로 토양이 유실되고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하며, 홍수 피해 확대, 농업 및 어업 산출량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동국 정부 역시 삼림 자원의 고갈 속도가 재생 속도를 능가하여 지속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벌목업의 축소를 추진 중임.
- 정부는 자원 부문에 대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벌목 규모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지속 가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신규 벌목업체 및 삼림조합 비회원에게 벌목면허 발급을 중단한 상태임. 벌목업의 축소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벌목업을 대체할 산업 개발이 시급하나, 현재 솔로몬 군도에서 성장잠재력 있는 산업으로 꼽히는 관광업, 어업, 농업(팜유, 코코아 등) 부문은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이미 선도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성장잠재력

### 교통, 통신, 전력 등 기본 인프라 미비

- 군도라는 지리적 특성,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 부재와 자원 부족 등으로 교통, 통신, 전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 발달이 미비하여 투자 유치와 경제발전에 한계로 작용함.
- 국내 거주자 간 해상거리(sea distance)가 평균 200km 이상일 정도로 국토가 분산되어 있어 지역간 교통 연결이 어려우며, 통신과 전력 인프라도 미비하여 총인구 대비 인터넷 접근성이 약 12%, 전력 접근성이 약 60%에 불과함<sup>4)</sup>.

4)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 성장잠재력

###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성장 가능성 잠재

- 이사벨 주(Isabel province)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넓은 니켈 매장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신규 보크 사이트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등 미개발 상태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자원 개발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원자재 수요 및 가격변동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과 수출 증대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2014년 이후 채굴이 중단되었던 Gold Ridge 금광의 생산 재개를 위해 2019년 9월 중국국제 철도그룹(China Railway International Group)과 8.25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음. 동 계약은 전력시설, 항만, 도로, 철도, 교량 등의 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계약 하에 건설된 인프라의 소유권은 중국국제철도그룹 측에 귀속되는 조건임.
- Gold Ridge 금광은 2014년 홍수로 폐쇄되었으며, 당시 광산 운영을 맡았던 호주 광산회사가 이 일로 추방된 이후 생산이 재개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음. 동 광산은 한때 솔로몬 군도 GDP에 대한 기여도가 20% 이상이었을 정도로 주요한 자원이며, 시설 정비 후 본격적으로 생산이 재개된다면 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저 케이블 건설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 기대

- 2018년 6월 솔로몬 군도는 호주와 총 4,700km 길이의 해저케이블(Coral Sea Cable System)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7월 착공하였음. 이 중에는 솔로몬 군도 내 730km 구간(Honiara~Taro)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임. 동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파푸아 뉴기니 및 솔로몬 군도는 각각 약 20테라바이트(TB) 수준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저 케이블 개통은 현재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양국의 인터넷 접근 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등 관련 산업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해저케이블 경로



\* 자료: Submarine Networks

## 성장잠재력

###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로 난항

- 정부는 별목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해왔으며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임.
- 2020년 1월 개최한 관광산업 포럼에서 소가바레 총리는 연간 9%의 방문객 증가율 유지와 'Low Cost-High Impact' 전략을 강조하였으며, 관광부에서는 2019년 국교를 맺은 중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어 마케팅 확대,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계획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솔로몬 군도의 관광산업은 소강 상태임. 솔로몬 군도는 2020년 10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발병 사례는 없었으나, 국내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산업의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움.

## 정책성과

### 짚은 정권 교체로 인해 경제개발계획 추진 곤란

- 2006년 이후 8차례 총리가 교체되었을 정도로 정치적 변동성이 매우 높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몇 달 간 모든 정치 사안이 일시 중지될 정도로 정치 체계가 불안정하여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곤란한 여건임.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기부양책 발표

- 2020년 5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800만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였음. 동 부양책에는 관광업계에 대한 5년간의 세금 면제, 채무상환 유예, 작물 수출 관련 9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농촌 지역 소득 보조 등이 포함되었음.
- 2020년 6월 1일 IMF가 2,900만 달러 규모의 긴급재정지원금을 지원하여 동 경기부양책 재원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자개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도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 정치안정

### 2019년 선거 결과 소가바레 총리가 4번째로 총리직 취임

- 솔로몬 군도는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 수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임. 실질적 행정 수반인 총리의 추천을 받아 여왕의 대리인인 총독이 내각을 임명하는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4월 총선 및 총리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된 소가바레 총리는 이번이 4번째 총리 취임으로 직전 총리직 수행시 (2015~17년)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불신임투표로 퇴출된 바 있음.
- 2019년 총선에서는 50개 의석을 놓고 336명의 후보들이 경쟁하였으며,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자가 21석을 차지하였음. 소가바레 총리가 소속된 여당은 총선 승리 후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다수 영입하여 32개 의석을 확보하였음.

### 소가바레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 솔로몬 군도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소가바레 총리는 부총리 재임 시절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여 2018년에는 원조 수혜액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지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조카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과 방역이 우선시되면서 올해는 관련 정책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음.
- 2019년 12월, 야당은 소가바레 총리의 조카이자 최고 비서관인 조코비치가 이사벨 주 니켈 개발과 관련하여 호주 광산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뇌물을 수취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 최상위층에서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가바레 총리의 거취 검토를 요구하였음.

### 중앙정부와 말라이타 주 정부 간 관계 악화

- 말라이타 주 정부는 중앙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으며, 2019년 9월 실제로 중국과 수교한 이후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화되어 2020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주 정부가 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주 정부와 중앙정부 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독립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말라이타 주가 주권국가로서 독립된 경제력, 행정력,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시됨.



## 사회안정

### 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소요 경험, 불안요소 상존

- 1999년 7월 수도인 호니아라가 위치한 과달카날 섬 원주민과 인근 말라이타 섬 원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2000년 6월 말라이타 원주민 조직이 수도를 포위, 총리를 감금하고 사퇴를 종용하였음. 호주와 뉴질랜드가 사태 해결을 위해 개입하였으며 말라이타 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6월 30일 총선을 실시, 야당 총재였던 소가바레가 총리로 선출되었으나 종족 간 폭력적인 소요 사태는 2003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졌음.
- 삼림 분포상 주력 수출산업인 벌목업이 과달카날 섬 위주로 발달하면서 말라이타 섬 주민들이 대거 과달카날로 이주하였으며, 타 지역 출신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과달카날 원주민의 불만과 자원 배분 및 이주민배척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라이타 원주민의 불만이 갈등의 주원인이었음.
- 종족 간 무력 충돌 방지, 내부 치안상황 개선을 위해 2003년 호주·뉴질랜드를 주축으로 파견된 '솔로몬 군도 지역지원단(RAMSI)'이 2017년 6월까지 솔로몬 군도의 치안 유지를 지원하였음.
- RAMSI 철수 후 첫 총선이 2019년 4월 실시되었으며, 선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호주와 뉴질랜드가 질서 유지를 지원하였음. 선거 직후 호니아라에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곧 안정을 되찾았음.

## 국제관계

### 호주와 긴밀한 우호관계 지속

- 솔로몬 군도는 호주와 2017년 6월 '원조 동반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동국 앞 원조 공여, RAMSI 파견 등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지원을 지속해왔음.
- 호주 입장에서는 대양주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솔로몬 군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19년 7월~ 2020년 6월 중 호주의 동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ODA) 규모는 약 1.17억 달러로 이는 2019년 솔로몬 군도 GDP의 7.3% 수준임.

### 대만과 단교,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 솔로몬 군도는 대만으로부터 원조를 공여받는 한편 대만의 UN 가입을 지지하는 등 상호 협력해왔으나 2019년 5월 소가바레 정부가 대만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선언하였음. 이후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등 대양주 지역에서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추진한 끝에 2019년 9월 대만과 단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 향후 중국 정부 및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나 이와 동시에 채무 급증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자국의 이권을 우선시하면서 솔로몬 군도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양국 수교 다음날 중국 국영기업이 동국 주 정부와 툴랑기 섬(2차대전 중 일본이 해군기지로 사용하는 등 지리적 요충지)의 75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국 법무부는 이 계약이 불법이라고 판시함. 이외에도 Gold Ridge 광산 개발 계약을 수교 35일만에 체결하는 등 중국 측은 수교 직후부터 이권 획득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속적인 차관 지원

- IMF는 솔로몬 군도 앞으로 2010~11년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Facility)\*, 2012년 이후 1.5백만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등을 지원하였음. 또한 2014년 ADB는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15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였음.

\*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회원국의 단기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중기적 지원수단으로, 지원조건은 이자율 0%,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5.5년 포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IMF는 최빈국 25개국을 대상으로 재해 억제 및 채무 경감 기금(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을 통해 지원금 상환을 유예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솔로몬 군도 역시 유예 대상에 포함되었음. 또한 2020년 6월 IMF는 긴급 재정지원을 위해 동국 앞 2,9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였으며, 7월 ADB 역시 2,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채무상환능력 지표는 양호하나 외부 대응능력 취약

- 2019년 말 기준 공공채무는 GDP 대비 10.1%, DSR 2.6%,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8.1개월 규모로 외채 관련 지표5)가 양호함. 그러나 대형 인프라 투자 증가, 목재 수출 감소와 대체산업 개발 부진, 2023년 Pacific Games 개최 등으로 향후 채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원조 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B3 ('19.10.)	B3 ('17. 10)

###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Moody's만 신용등급 부여

- Moody's는 2019년 10월 낮은 정부채무 규모, 주변국들의 꾸준한 대외원조 등 긍정적인 요소와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 및 목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 부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신용등급인 B3를 유지함.

5) IMF,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 솔로몬 군도는 인구 64만명의 소규모 군도국으로, 국토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경제성장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 주력산업인 벌목업의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가 차원에서 축소 조정 중이며 광업, 농업, 관광업 등 잠재력 있는 다른 산업 부문이 아직 벌목업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외 수요가 침체돼 당분간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됨.
- 2019년 4월 총선 결과 소가바레 총리가 선출되었으며, 불신임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매우 잦아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고 종족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 현재 외채 관련 지표가 양호하고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원조 공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에 별 문제는 없으나,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